

학교운영계획서

소 속	화산초등학교	직 위	교사	성 명	이 혜 진
-----	--------	-----	----	-----	-------

I . 학교교육목표¹⁾

지 향

작은 학교, 삼우초등학교

농촌의 작은 학교가 갖는 환경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일상 수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인성교육과 마을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의 실현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아름다운 작은 학교”를 만든다.

철 학

- 가. 교육을 바라보는 철학이 공유된 학교
- 나. 참다운 즐거움을 쫓는 학교
- 다. 지극히 한국적이며 상식적인 학교

교육비전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는 작은 학교

자연 속에서 감성을 키우고,
인간미 넘치는 관계를 형성하며,
아름다운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배움의 힘을 기르는 작은 학교

교육소망

가. 자연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는 어린이

삶의 터인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의 질서에 따라 그 안에서
지혜를 배워 건강한 몸과 따뜻한 마음을 키워가는 사람

1) 2022학년도 삼우교육과정짜임새 발췌

나. 인간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는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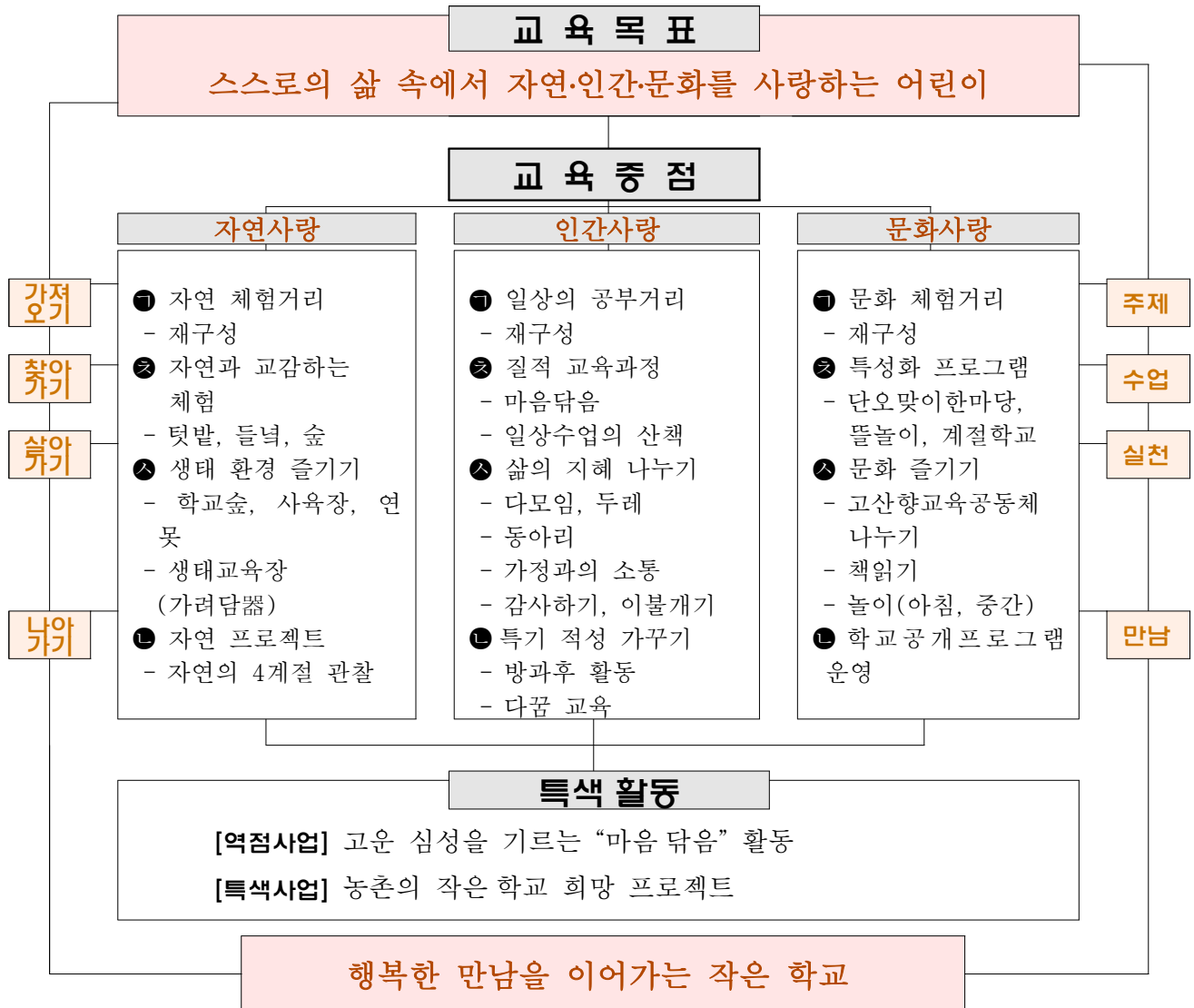
교사와 아이의 만남, 아이와 아이들의 만남, 마을과 아이들의 만남, 학부모와 교사의 만남 등을 통해 인간애를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꾸려가는 사람

다. 문화와의 만남을 소중히 하는 어린이

우리나라 옛 사람의 마음길(사고방식)을 생각하며 우리의 전통 문화인 진실함과 겸소함을 좇아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꿈을 그려가는 사람

II. 학교교육과정 운영

삼우교육의 추진전략²⁾



2) 2022학년도 삼우교육과정짜임새 발췌

혁신+학교 작은학교 교육희망 프로젝트

전북교육청이 지정한 혁신+학교가 운영되면서 공교육 내 보편타당한 학교문화와 수업 개선의 확산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품격 있는 학교문화, 정선된 교육과정, 일상수업의 질적 제고, 동료 간의 성장을 꾀하기 위한 보다 한국적이고 주체적이며 학교다운 학교의 대안을 창출하고 나아가 완주교육공동체의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삼우초의 혁신+학교 소망이다.

희망 1	삼우초의 철학과 문화를 지속 발전시키는 혁신+학교 운영
희망 2	교육적 필요에 걸맞은 새로운 학교환경 구축
희망 3	일상수업의 질 향상으로 교육의 품질 개선
희망 4	완주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혁신+ 도반학교 운영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1 교과(수업)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구성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갔음 하는 세상을 상상하고 녹여낸 것이 바로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때의 교육과정은 확정된 틀이 아닌 밑그림에 불과하다. 교육과정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력을 주는 것은 오롯이 아이들의 몫이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이들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동료로서 바라보는 교사의 시선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교장과 교사가 바뀌면 애정을 갖고 함께 만들어온 학교가 위기에 봉착할 때가 종종 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아이들을 교육과정의 주체로 세우면 된

다. 주인의식과 권한에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책임감으로, 아이들이 학교의 가치와 문화를 지속해 낼 것이기에 말이다.

교육과정의 주체로서 세워진 아이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학교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사는 마을의 주인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더불어 사는 가치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리라는 행복한 믿음이 있다.

실천 경험	혁신+학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과의 만남 프로젝트 - 역사 여행 프로젝트 - 경제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 삼우초의 핵심 교육활동을 교과목으로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적 교과목 모델 제시

2

주요 특성화 프로그램

[프로그램1] 계절학교 프로그램

지역사회 공동체(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에 따라 작은 학교의 유지 발전을 위한 학교교육의 문화적 접근 및 교육 프로젝트가 기획되었으며, 실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계절학교(여름과 겨울)’와 ‘단오맞이 한마당’이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확장된 지역사회 인력풀이 가동되는 프로젝트로써 ‘어린이, 삶 그리고 문화’라는 테마를 담고 있다.

순	구 분	내 용
1	바탕놀이	요리하기, 영화감상, 축구·전통놀이
2	선택놀이	다도, 도자기, 그리기, 목공, 수영, 노래(민요), 검도, 태권도, 십자수, 펠트, 종이접기, 책놀이, 찜즈 댄스
3	두레놀이	숲속교실, 생태체험(만경강, 고산휴양림), 야영(3~6학년)

[프로그램2] 단오맞이 한마당

단오맞이 한마당은 우리 문화를 향유 하기 위한 작은 축제 마당으로 우리 민족의 주요 명절인 단오에 대한 의미와 놀이를 구체적으로 교육과정화한 프로젝트이다.

순	마 당	내 용
1	마당열기	다함께 준비하기, 행사 의미 새기기
2	길 곶	삼우초 풍물패

순	마 당	내 용
3	작품마당	①부채 그림 그리기 ②작은 솓대 만들기 ③내가 만드는 수리떡 ④새끼줄 꼬기(짚풀공예), 달걀꾸러미 만들기 ⑤전통다도 즐기기 ⑥천연비누 만들기 ⑦재활용품 판매하기 ⑧탁본체험 ⑨창포 머리감기
4	음식마당	①유기농 쌀밥 먹기(점심) ②흑미떡 먹기(오전 셋거리) ③감자 구워먹기(오후 셋거리) ④우리밀 구워먹기 ⑤유기농산물 전시 판매 장터 운영(오리농법쌀, 딸기잼, 행복란, 양파, 된장, 마늘, 감잎차, 텃밭생산물 등) ⑥딸기주스 ⑦감식초 마시기
5	놀이마당	①널뛰기 ②단오그네 ③모내기/우렁이 넣기 ④씨름 ⑤옷놀이 ⑥경로 놀이
6	대동놀이	강강술래 - 고사리 꺾기, 덕석몰이, 청어엮기, 문열기, 기와밟기, 가마동동, 닭살이, 남생이 놀이
7	마당단기	뒷정리(갈채 만들기)

[프로그램3] 뜰놀이 프로그램

학생, 학부모, 교원, 마을 어른들이 학교 뜰에 모여 농촌 가을의 풍성함을 나누고, 작은 학교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자리가 ‘뜰놀이’이다.

순	구 분	마 당	대 상	순	구 분	마 당	대 상
1	물레방아 활동 (오전)	준비 운동	어린이 모두	11	공동체 활동 (오후)	여는 마당(길긔)	모두
2		수수떡 만들기	어린이 모두	12		자치기, 신발차기	마을별 학부모
3		올케심니 만들기	세대별 1작품	13		모두 달리기	어린이 모두
4				14			
5		바가지 그림	세대별 1작품	15		긴줄넘기	모두
6		제기 만들어 차기	어린이 모두	16		줄다리기	모두
7		새끼줄 꼬기	어린이 모두	17		강강술래	모두
8		솓대 만들기	어린이 모두	18		마을대항 계주	마을별 학부모
9		연필목걸이 만들기	어린이 모두	19		배달치기 몸놀	어린이 모두
10		음식즐기기	학부모가 준비한 점심식사(공동)	20		정리 운동	어린이 모두
				21		성적발표(마무리)	모두
☺ 운동장 둘레에서 열리는 놀이마당				☺ 학구 전체를 4개의 마을로 나누어 마을 대항 경기를 펼침			

3

학교교과목 - 마음 닦음 교육 활동

삼우초만의 교육과정인 학교교과목 ‘마음닦음 교육활동’의 다도, 입단행궁, 텃밭, 동물 키우기, 놀이, 산책 등이 아이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한다. 이런 일상이 쌓여 자연·인간·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 아이로 성장하리라 믿는다.

실천 경험	혁신+학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담음 교육활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상하기, 입단행공, 다도 ○ 생태 교육활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텃밭을 활용한 생태·노작교육 실시 - 닭 한살이 프로젝트 운영 (닭 키우며 달걀 수익금 지역사회에 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과목 ‘마음담음 교육활동’ 적극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담음 교육활동’ 정착 및 보완

동료적 공동체 문화

교육이란 혼자 만들어 갈 수 없기에 교사와 교사 사이의 관계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교사와 교사의 관계 맺음이 건강할 때만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기에 말이다. 동료는 서로를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는 존재여야 한다. 동료의 다름이 틀림이 아닌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같은 힘으로 학교 공간에 흘러넘쳐야 한다. 그럴 때만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지지해주는 동료로서 함께하는 공동체적 삶을 꿈꿀 수 있게 된다.

최근 교육 현장에 바람직한 변화가 하나 있다. 교사들이 흔히 잡무라고 하는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오롯이 교육과 아이들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의 업무제화하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특히 삼우초같은 작은 단위의 학교에서는 교감을 제외하고 교사 단 한 명만이 교육지원팀을 꾸려나가야 하기에 교육지원팀의 ‘팀’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물론 더 중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물이 담기는 컵에 따라 물의 모양이 달라지듯 교육지원팀도 어떤 교사가, 어떤 방향성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행정을 위한 업무를 할 것인가? 아님 교육을 위한 업무지원을 할 것인가? 교육지원팀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적 목적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팀이 되어야 한다. 이런 현실 속에 삼우초는 단 한 명의 교사가 업무를 100% 감당한다. 또한 교육지원팀의 성격은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교육적 합의가 공유되었다. 이것은 학교공동체를 위한 자신의 희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배려와 동료성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업무에서 해방된 담임교사들은 수업하는 교사로서, 교육하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더불어 교육지원팀 동료교사에 대한 긍정적 부채의식에서 발로된 동료성에 의해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갖게 된다. 높은 책임의식은 교육에 대한 책무성으로 선하게 귀결되는 것이 어쩔 당연한 순리일 것이다. 교육지원팀 역할을 수행한 교사도 다시 담

임교사로 복귀했을 때 학교 교육과정의 제반 사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급 단위를 벗어나 학교공동체 단위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교사로서 성장해 있다. 동료성이란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있다.

실천 경험	혁신+학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 상상력이 존중되는 학교 풍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적인 학교문화 ○ 동료성의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팀제 운영(행복팀, 만남팀) -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제로화 교육지원팀 운영 ○ 공동체적 교육 현안 해결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초 생활지도 워크샵(1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군간 일상수업 공개 및 수업협의 지속 ○ 일상수업산책 및 세미나의 활성화 ○ 교육지원팀(교무행정 업무지원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제로화 - 교장, 교감, 교사로 구성된 교육지원팀 운영 ○ 교사의 팀웍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중심, 교사 중심의 분위기 제고 - 학급 단위의 현안 문제에 대한 교사공동체 문제 공유 및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 ○ 공동체적 학교문화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도반학교 꼭지 운영

수업연수 일상화 모형 정립

교사는 1인 다역이다. 행정업무와 담임 역할, 수업이라는 임무가 동시에 주어진다. 이 가운데 수업은 좀 허술해도 별로 티가 안 나기에 교사들은 행정업무로서 능력을 평가받을 때가 많다. 심지어 공문서 기안이 약간 허술하다고 하여 교사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때 또한 많다. 그런데 교사가 행정업무로서 능력을 평가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낯선 행정용어를 제대로 익히고 사용하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수업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 교사들의 협력적 실천 대상 또한 학교행정업무가 아닌 수업이어야 한다. 교사들이 수업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수업함에 있어 교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교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수업이 이뤄지기에, 수업은 자칫 교사 자신만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편협해질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수업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교사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교실 안에, 자신의 수업 안에, 수업을 되돌아보는 시간에 동료 교사를 초대해야 한다. 동료와 만나지 않는 수업 성장이란 불가능하다.

그런데 동료를 초대함에 있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동료 교사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시선이다. 비록 거창한 교육이론으로 무장된 학자가 아니지만 현장의 실천적 경험을 가진 동료의 전문성을 믿어야 한다. 동료의 실천적 경험을 믿고, 동료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동료와의 협력적 실천이 가능해진다.

실천 경험	혁신+학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수업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부터 현재, 매주1회 ○ ‘일상수업’ 이란 화두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현장에 공론화 ○ 실험연구프로젝트(2014, 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수업의 산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과정들 : 관찰 ⇨ 토론 ⇨ 사유 - 교내 자체 세미나 2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연수 일상화 모형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수업공개, 관찰과 이해, 분석과 개선 방안 ○ ‘일상수업의 산책’ 재정립 및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들 : 관찰 ⇨ 토론 ⇨ 사유 - 수업협의 세부 과정 정립 ○ 혁신+ 도반학교 시범 운영

품격있는 학교문화

학교의 가치나 철학은 언어로서 공유되어질 수 없고, ‘설득’이라는 형식으로 폭력적으로 강요되어서도 안 된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의 자살한 일상을 통해 학교의 가치가 교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을 때만이 진정한 공유가 가능해진다.

삼우초로 막 전입했을 때의 일이다. 몇 학년을 희망하는지를 묻는 질문과 함께 나의 희망대로 해당 학년과 업무를 배정받았을 때의 경험은 낯섦을 넘어서 충격이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새로 전입한 교사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피 학년과 기피 업무를 배정받는 것이 관행적으로 당연시되기에 말이다. 배려받은 자가 배려할 수 있고, 나아가 배려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소중한 순간이었다.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는 학교의 일상에 녹아들어 품격있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실천 경험	혁신+학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성의 품격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교사 배려 원칙(담임배정, 매년) - 보직교사 순환제(전교원 2회) ○ 토론에 의한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구조에서 논의구조로 전환 <p>ex. 특성화프로그램 배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격있는 학교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성에서 전문성으로 전환 - 이론가(운동가)보다 실천가 중시 ○ 학교의 본질과 맞닿은 민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성장 중심의 학년 배정 - 교육(수업) 중심의 업무 분장

한국적인 학교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은 교육이나 공부에 대하여 누구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였으며 문화였다.

근대교육에 들어서면서 서구의 학교 시스템과 교육과정은 걸러지지 않은 채 이식되고, 교육내용(지식) 또한 그러하였다.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인력을 급하게 배출하여 공급해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가 작용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의 고귀한 문화적 전통이나 정신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훼손되었으며 옛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다산은 어린이의 학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통해 문심해두(文心慧寶)를 여는 일이라고 보았다. ‘문심’은 글자 속에 깃든 뜻과 정신이고, ‘해두’는 슬기 구멍이다. 문심을 알고 해두가 열려야 공부머리가 갠다. 머리가 깨지 않으면 백날 공부해도 헛공부다. 예전 아이들은 으레 ‘천자문(千字文)과 사략(史略)으로 첫 학습을 시작했다. 문리가 좀 나면 ’통감절요(通鑑節要)를 읽었다. 다산은 이런 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의 학습법은 독특하고 경쾌했다(정민. 삶을 바꾼 만남. 55p).

‘천자문’의 지도와 관련하여 다산은 각 구절 사이에 일관된 의미가 없고 체계적인 정보전달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아학편(兒學編)이라는 일종의 대안교과서를 만들어 지도하였다.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외국의 것들을 들여다보느라 우리의 것을 놓치고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학계 전문가들의 무분별한 외국 이론의 도입과 전파 영향이 크다. 군사독재정권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화된 학교 교육의 영향 탓도 없지 않다. 그리고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책임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실천 경험	혁신+학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닦음 교육활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도, 명상, 입단행공, 텃밭 가꾸기 ○ 한국적인 학교에 대한 토론(전교원,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적 학교의 의미 - 동양적 사유의 틀(사고방식) - 한국적 학교의 길 <p>ex. 동료성에 기초한 사유하는 학교 교사의 전문성에 기초한 수업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극히 한국적인 학교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적 학교 밑그림 - 한국학 전문가 세미나 ○ 한국적 교육(수업) 밑그림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져오기 - 찾아가기 - 살아가기

혁신 + 도반학교³⁾ 운영

삼우초등학교는 전북교육청의 인증형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삼우초의 혁신사례에 관심있는 도내외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공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삼우초등학교의 학교공개프로그램은 도내외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연수 내용을 크게 A유형과 B유형으로 나누어 운영한 바, 전북교육청이 시도하고자 하는 ‘상설연수원학교’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천 경험	혁신+학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공개프로그램 A, B 유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회 100명 내외, 총8회 운영 ○ A 유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우초 교육환경(30분) - 삼우초의 교육(30분) - 삼우초의 수업(30분) - 교사와의 대화(40분) ○ B 유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 수업대화 과정(30분) - 질적 수업 관찰법(35분) - 질적 수업 기록(15분) - 수업의 질적 대화(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도반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 정례 - 상설’로 확대 운영 - 전북형 수업연수 모형 정립 - ‘일상수업의 산책’ 체계화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틀 : 관찰 ⇨ 토론 ⇨ 사유 □ 수업협의 세부 과정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텝1 ‘토론나누기’ 스텝2 ‘토론더하기’ 스텝3 ‘토론즐기기’ ○ 완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지역혁신교육의 중심역할하기

3) 혁신+ 도반학교는 전북교육청의 ‘상설연수원학교’를 갈음하는 명칭으로 학교혁신에 대한 의지를 가진 학교나 개별 교사를 대상으로 혁신교육에 대하여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학습하는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육 주체의 자치 역량 강화

2019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인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마련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 주체들의 자치를 권리로써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자치 권리와 권한은 선언으로서, 구호로서 주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학교교육의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내고 직접 실행하는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교사는 교사대로 원하는 교육과 학교문화를 꿈꾸고, 자신의 바람과 생각을 동료들과 공유하고,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자치의 경험을 만들어가야 한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마을교육공동체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서로 소통하고 나아가 집단지성을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야 한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어 직접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 도전해야 한다. 배움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원하는 배움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비록 초반에는 이런 자치의 과정들이 산만해 보이고 어설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좌충우돌의 과정은 성공·실패와 상관없이 교육 주체들의 자치력을 성장시킨다. 특히 자치는 자율에 비례하는 만큼 책임이 요구되기에 수많은 실패는 치열한 반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런 반성의 시간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즉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교육 주체들은 학교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천 경험	혁신+학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워크를 중시하는 교사중심의 학교 ○ 학생 자율 자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모임과 두레 운영 ○ 학부모회의 명실상부한 자율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학부모회를 넘어 학년학부모회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성의 질적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학습 공동체 강화 ○ 학생 자치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모임, 두레활동 중심으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다모임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행사) - 자율동아리 무학년제 운영 및 자율 프로젝트 활동 지원, 자율동아리 배움나누기 날 운영 - 두레지기 역할을 통한 리더십 함양 - 원하는 도전을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 ○ 삶의 보람을 찾는 학부모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회 주관 동아리활동 지원 - 학부모 학교 참여 기회 확대 (학부모 다모임 운영)

Ⅲ. 학교교직원 관리 및 지원

학교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아이들이다. 그러기에 학교 행정은 관리를 위한 행정이 아닌 교육을 위한 행정이어야 한다. 모든 행정의 고민의 시작점은 아이들이어야 하고, 행정의 선택 또한 온전히 아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듯 교육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려면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간의 협력적 관계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서로 수평적으로 존중하는 관계일 때 신뢰가 가능하고,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만이 모든 구성원이 자발성을 발휘해 아이들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장의 시선이다. 보통 존중은 주로 나이가 어리거나 직위가 낮은 사람에게만 요구될 때가 많다. 그런 관료적 수직관계 상황 속에서는 학교는 경직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학교 행정은 관행적이고 관리적으로 접근될 수밖에 없다. 교장은 모든 학교 구성원들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존중을 바탕으로 한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학교에서 상대적 강자인 교장이 먼저 교직원을 존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수평적 관계가 가능하고 나아가 협력적 관계가 학교 안에서 꾸러질 수 있는 것이다.

실천 경험	혁신+학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과 교직원들과의 민주적, 수평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를 바탕으로 재량권 부여 및 권한 위임 - 학교 정보의 수평적 공유 ○ 교장과 교직원들과의 협력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을 위한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 아이들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강화 - 교원행정업무·행정실 업무의 정확한 진단과 재구조화 및 협력방안 찾기 ○ 교육적인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지성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 절차적인 과정의 민주성 확보

Ⅳ. 시설, 환경, 재무 등 일반운영

학교 운영의 행정적 관리 측면인 시설, 환경, 재무 등 일반 운영을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보조와 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학교의 시설과 환경이라는 물리적 교육 환경을 학생들의 성장(확장)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정서적 교육 환경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를 배치(설치),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교 공동체의 집단 지성이 작동되도록 한다.

또한 학교의 재무를 운영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학교예산(회계)관리 전북교육청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되 학교의 본질인 교육과정(수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학

교구성원과 함께 다각도로 강구하고자 한다. 한편 제반 시설 환경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용역(전기안전, 소방관리, 오폐수처리, 시설방역, 놀이시설안전 등)의 발주, 선정과 계약, 운영의 과정에서 학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민주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농촌의 작은 학교가 가지는 특성화 가능성을 좇아 학교의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학교의 시설과 환경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에 교육공동체가 몸소 참여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임과 아울러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람과 희열을 공유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실천 경험	혁신+학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작은학교 모델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중심의 공간 배치 및 동선 확보 ○ 작은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의 새로운 접근 - 놀이공간, 휴게공간, 토론공간 ○ 작은 학교 미술실 개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구성원의 요구 실현 - 미술실 공간의 전향적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식생활을 위한 조리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식생활(중식) 제공 ○ 마을과 함께하는 강당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배치 ○ 학생 중심의 학교숲 공간 재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가 있는 벤치 설치 - 숲 밧줄 놀이터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 - 야생화 가꾸기를 통한 생태 교육 - 자연친화적 동물 농장 조성 및 운영

V. 지역사회 연계활동

아이들에게 마을과의 연결은 왜 중요할까?

아이들의 배움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학교 바깥 마을로 넓혀졌을 때 아이들의 배움은 삶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면서 마을의 다양한 환경과 자원, 마을 어른들로부터 배울 때 아이들의 배움은 삶과 하나가 되어 생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정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있는 아이들을 마을의 멘토와 연결해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이들 존재를 존재 자체로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른이 단 한명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가정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성장의 고비 고비마다 마을의 멘토로부터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교육의 책무라 본다.

실천 경험	혁신+학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산초등학교와 방학 중 방과후, 돌봄 통합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인 고산풀뿌리지원센터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을 통해 협업실천 ○ 단오맞이 한마당을 지역의 행사로 자리 매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교육협력지구 사업 연계 마을교육과정 운영 - 마을여행을 통해 마을의 삶 이해하기 (마을여행 유형 개발 및 운영) ○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교육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기관과 단체, 교육 활동가, 교육청 등과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시스템 구축 - 마을교육공동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연수 실시로 지역교육력 향상 -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단체 및 배움의 장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풀뿌리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 지역의 멘토와 아이 연결하기 -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

혁신+학교 중장기 계획

연도	주요 추진 사업 및 내용	비고
2022 -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수업의 산책’ 정립 및 일반화 가능성 탐색 ○ 혁신+ 도반학교 시범 운영 ○ 작은학교 교육과정의 대안(한국적 교과목 개발 및 운영) 구상 	
2023 -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형 수업연수모형(‘일상수업의 산책’) 일반화 ○ 혁신+ 도반학교 정례 운영 ○ 작은학교 교육과정의 대안(한국적 교과목 개발 및 운영) 마련 	
2025 - 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형 수업연수모형(‘일상수업의 산책’) 일반화 ○ 혁신+ 도반학교 상설 운영 ○ 작은학교 교육과정의 대안(한국적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일반화 	